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7호 【루게 제 24560호】 주제 103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윤동현동지, 홍영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일떠선 강성원과 더불어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 다시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꾼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강성원운영은 잘되는가, 맥주공장의 생산은

정상화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로동자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에 오면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수가 없다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생산증산으로 당을 결사옹위해온 공장로동계급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한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인 기계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한 로력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강성원운영을 더 잘하며 새로 건설한 무난방은실과 버섯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로동자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병행하여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로능적위군 녀성고사총중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6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기계 제작공업발전추세도 잘 알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땀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실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의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늘 강조하신 문제이라고, 공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업원들이 학습도 전투라는데를 명심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조립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만든 현대적인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를 만들어 냈다고 하시면서 사용자들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낼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해당 단위들에서 협동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조립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만든 현대적인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를 만들어 냈다고 하시면서 사용자들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낼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해당 단위들에서 협동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08년 6월 이곳 중대를 찾오시여 화력부무훈련을 지도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고 교양실, 병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렸다고, 아담하고 깨끗하다고,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높이 평가한 중대를 못지 않다고 치하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며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민방위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예술소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을 통하여 대원들은 백두산천출명장들의 손길아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탄 강위력한 전투태도,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이적부대로 자라난 로농적위군의 불패의 위용과 자기들의 보람찬 복무생활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예술소공연을 대원들의 가슴마다

에 차넘치는 조국애, 공장애, 혁명적 락전성을 그대로 보여준 훌륭한 공연, 사상예술적으로 나무랄데 없는 공연, 당의 군중문화예술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준 공연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서로 합심하여

중대를 로농적위군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림으로써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민방위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뜻깊은 시찰을 마치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눈물속에 따라서며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춘거리 경기관, 경기장들과 평양 체육관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후대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훌륭히 개진된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체육관에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춘거리 경기관, 경기장들과 평양체육관에 최상급의 체육기재와 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현대적인 체육기재와 설비들이 그뿐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선수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경기와 훈련, 대중체육봉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춘거리 경기관, 경기장들과 평양체육관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6일 청춘거리 경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김영환체육상, 체육부문의 여러 단위 일군들, 선수, 감독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최봉해동지가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세 세계의 요구에 맞게 청춘거리체육촌과 평양체육관을 일신시켜 우리 체육인들에게 훌륭한 훈련조건을 마련해주신데 이어 또 다시 체육기재와 설비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제경기장에서 우승한 우리 체육인들에게 시대의 영웅, 참다운 애국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며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고 말하였다.

모든 체육지도 일군들과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금메달로 강성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모임에서는 체육시설관리국 국장 강영남, 체육기술원명 봉구협희 부서기장 박천중, 리명수체육단 선수 김혜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체육기재와 설비들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체육인들의 가슴가슴은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금메달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선물들마다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새차례 일으켜 국제경기장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체육사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갈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선수들과 감독들이 체육부문에 쌓아 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당의 최첨단들과사상의 요구대로 체육의 모든 종목을 과학적태도에 이 올려세움으로써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은정어린 체육기재와 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정상관리, 정상보수체제를 철저히 세워 훈련과 경기, 대중체육봉사에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주체의 체육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참담케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전하는 감동적인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체육기재들과 비품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세계에서 으뜸가는 야영소를 마련해주시고 얼마전 문화용품들과 로리실습도구들까지 보내주시는데 이어 부족함이 있을세라 다심한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야영소에 뜨겁게 굽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6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야영소일군들과 교직원들, 야영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도 보내주신 선물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덕체를 갖추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더 훌륭히 자라날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온 나라 학생소년들과 학부모들, 교직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야영생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소년혁명가, 나라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다운 체현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교직원들과 일군들은 사랑의 선물설비와 비품들을 정히 다루고 그 관리를 잘함으로써 야영소들 당의 후대관을 깊이 전하는 행복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야영생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 그들이 즐거운 야영기간을 일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김 일 성 동 지 회 고

라 이 위 원 회 결 성

김일성동지회고 라이위원회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민족음악발전과 주제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제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우리 음악예술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위치를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가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혜와 힘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음악은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들여있는 귀중한 문화적재보이다. 우리의 민족음악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 생활습관을 반영한 음악이다. 《아리랑》, 《드라지》, 《양산도》와 같은 민요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사상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대표적인 민족음악작품들이다. 사회주의음악예술은 비록우에서가 아니라 민족음악유산, 특히 민요의 우수한 음악형식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에서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민요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민요 《아리랑》의 우수한 형식을 발전시켜 신시대에 창작한 《강성부흥아리랑》, 《행복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들은 오늘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훌륭히 구가한 작품들이고, 그로 하여 우리의 친한국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주제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민족음악부문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안락의 정세가 그러함 복잡한 속에서도 나라의 민족음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면서 각지에 흩어져있는 음악가들을 한 사람한사람 찾아주시어 민족음악유산을 발굴정리하는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하는 민족음악, 참다운 인민적인 예술을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음악에서 주제는 민족음악이라는 고전적성취를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뿌리뽑고 민족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음악을 주제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음악 발전에 관한 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음악의 현대적개화를 열어나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화예술혁명을

령도하시던 첫 시기에 민족악기를 전면적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기초하여 우리 식의 독창적인 배합관현악을 창조하시였으며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민족악기, 민족성악형식들을 창조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중앙예술단체들은 물론 지방예술단체에서도 자기 예술단의 특성을 살리면서 민족음악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서 민요가 널리 불리워지고 민족악기들이 연주됨으로써 온 나라가 민족음악으로 들끓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민족음악발전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들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시는 것은 음악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본분이다.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음악예술부문에 발돋움정리하는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신데 1970년대에 이룩한 민족음악작품창조의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이다. 만수내예술단과 국민민족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들과 지방예술단체들에서 민족음악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곤 하였던 지난 시기의 경험들을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에 창작하여 공연무대에 올렸던 민족음악형식과 작품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동시에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민족음악작품들을 창작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주제적인 문예사상과

미학관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민족음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주제음악건설의 자랑찬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할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로 록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민족음악의 종류와 형식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음악이 우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금 음악예술부문에서는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민요독창가수들과 민족악기연주자들이 그리고 민족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와 지휘자 등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음악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주제적인 문예사상과 미학관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민족음악작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나라에 민족적정서가 더욱 활짝 꽃피는 주제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실장 교수, 박사 박형섭

예술인재후비육성의 밑거름되어 평양음악학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음악예술인재후비육성에서 중요하였던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새 씨앗을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것이이다.》 평양음악학원에서 민족음악 예술인재후비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악학부에서는 전공학과와 학생들을 위한 민요와 민족성악교육을 강화하고있으며 민요기량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민족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면서 민요를 부르는 재능있는 예술인재후비로 준비해나가고도 하고있다. 민중기악학부에서도 재능있는 민족악기연주자후비들을 잘 키워내는데 보름 학교 교수내용과 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해나가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따라 세로 나온 소학한 어은급학과와 중학반 통소학과

의 교수요강작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학과들의 교수요강작성사업에서 백두산건설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정적들과 5대 혁명기구의 노래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여주신 명곡들, 민요들을 더 많이 반영하여 교육에서 주제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한계한 높이기 위하여 학과별, 강좌별로 주제 친민족악기 연주발표회를 진행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매달 학부적인 민족악기 연주발표회에 출연시켜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실기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그리고 목요강좌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연주법들을 더욱 과학화하기 위한 토론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학부에서는 육류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민족음악을 때때고나갈 인재들을 키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예술교육은 주제예술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얼마전 우리는 2.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를 찾았다. 교장 최원봉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연혁실로 안내하였다. 학교에는 나라의 예술인재 후비양성을 위해 기울여오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뜨겁게 깃들여 있다. 주제 61(1972)년 10월 15일 자강도구만단(당시)의 음악무용합동연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강도에도 예술전문학교를 하나 내오면 배우들을 자재로 양성하여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술적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예술전문학교를 운영해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에도 예술인재후비양성지인 예술전문학교를 내오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학교에 어려웠던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기를 들으며 교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리는 장새납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부드럽고 독특한 민족목관악기의 울림은 우리의 마음을 절로 흥겹게 하였다. 우리는 장새납소리가 울리는 학교의 음악당의 문을 열었다.

현대적인 융합설비와 조영기구를 갖춘 음악당에서는 이곳 학생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불타는 소원》 준비가 한창이였다. 단소, 가야금, 저대, 장고, 장새납, 어은금 등 민족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들의 예술적기량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교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학교 학생들이 장새납, 팽파리, 장고, 북, 징을 들고 출연한 3인무 《송년발에 울리는 농악소리》를 몸소 보아주시고 기뻐하시며 공연성과를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재능있는 예술인재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는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을 우리는 후덜덜 느낄수 있었다. 교정에 어렸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두고 민족음악예술의 배일을 때때고나갈 주인공으로 이 세계 자라날 결의들을 떠놓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또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진정 후대들을 위해, 보다 찬란한 내 조국의 배일을 위해 헌정된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속에 2.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는 주제예술의 미래가 꽃피는 예술인재후비양성지로서 자랑됨을 치고있는 나라라. 이런 뜨거운 경정을 안고 교정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 민족적색채가 짙은 장새납소리가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특파기자 돌세웅

민족적흥취 돋구어주는 장새납소리

2.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를 찾아서

현대적인 융합설비와 조영기구를 갖춘 음악당에서는 이곳 학생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불타는 소원》 준비가 한창이였다. 단소, 가야금, 저대, 장고, 장새납, 어은금 등 민족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들의 예술적기량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교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학교 학생들이 장새납, 팽파리, 장고, 북, 징을 들고 출연한 3인무 《송년발에 울리는 농악소리》를 몸소 보아주시고 기뻐하시며 공연성과를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재능있는 예술인재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 경모의 정 표시

만수내연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 땅우에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으며 조국통일업무를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흥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중국대사관 성원들 령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6일 순안구역 조종진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헌신지도사적이 깃든 영광의 땅

핀스판진 교로뜨꼬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로씨야의 하바루스크에서 진행된 핀스판진 교로뜨꼬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16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월남인민군 총참모부 조사훈련국 대표단 도착

차파간인 자간스스 와 일행이 26일 평양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책임자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석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

훈원국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관들과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원이 맞이하였다.

제1선참호의 참된 주인들

체신성에서

《전 이미 배낭을 다 꾸러놓았 습니다.》...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아예단위 종업원들 누구나 이렇게 자원을 하였다. 어떤 종업원들은 전국농업부문본부장대회의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이 실린 신문을 품에서 꺼내놓고 《우리 농장의 농사에 자기도 맘을 바치게 해달라》 절절히 말하였다. 성의 정무원들과 그 아예단위 종업원들이 푸산군 서촌협동농장을 《우리 농장》으로 여겨온지는 오래다. 이들은 수백리 먼곳에 있는 농장의 일을 체질정성 생각하며 해마다 헌신적으로 도우주었다. 올해의 농촌지원원회는 더욱 불같았다. 몇달전 눈갈이와 썰매치기에 필요한 영농장비들과 20여종에 1만 4000여점의

판문점구역에서 벌리고있는 미군측의 그 어떤 불순한 도발행위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판문점 우리측 위수경무장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적의생방무력이 침에 도발행위에 매달리고있다. 적하면 군사분계선상에 확성기를 들고 나와 각종 명목의 《통지문》을 일방적으로 불어대거나 도적놈처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봉투를 슬그머니 군사분계선에 올려놓고 사라지곤 한다. 《전 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 북쪽출입문을 때없이 열고 우리측이 철저히 배격하는 그 무슨 《초청장》까지 내온드는 유치한 놀음도 벌리고있다. 이어 전 《군사정전위원회》회의실의 조선전쟁참전기발사진판에 참전국도 아닌 노르웨이, 단마르에 이어 최근에는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



재로씨야 동포 정일심

민족음악기해금

해금은 고조선시기부터 사용되어온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악기이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해금은 부드럽고 우아한 민중음악의 두레박 운율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일련의 제한성이 있었다.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악기개량

판문점구역에서 벌리고있는 미군측의 그 어떤 불순한 도발행위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이런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세해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이런 가소로운 놀음으로라도 《유엔군사령부》와 정전기구가 살아있는것처럼 세상을 기만하고 유사사 한계 나라라도 조선전선에 더 팔어들일수 있는 구실을 만들자는것이 미군측이 추구하는 음흉한 기도이다. 보다 엄중했는 판문점 회의장구역에 대한 정탐행위까지 로물까지도 강행하고있다. 오바마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반공화국대결방향을 늘어놓는 뒤에 더욱 우심해지는 미군측의 이러한 심상적이지 않은 움직임들에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우리 판문점 초병들은 미군측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도 에리하게 주의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 미군측은 저들의 적대행위가 어떤 심각한 후과를 빚어올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고 판문점정세를 격화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들을 당장 견제치울것을 미군측에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 판문점 전투원들은 예민한 판문점구역에서 미군측이 강행하는 그 어떤 사소한 도발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국제사회계가 준렬히 규탄

국제사회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였다. 미국이 지난 기간 미국식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체사상도 확고히 무장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신념을 허물고 조선식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불가공산품 와르사외지구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협이 머물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을 반대하는 핵위협과 공갈, 《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관련되어있다. 미국은 각종 살인장비들을 팔아넘기 침략적정찰활동을 벌리면서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조선에 넘겨주려 하고있다 개박했다.

인도네시아신문 《우아라 까르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나라들사이의 균형적인 지위가 보장되고있는 시기에 유독 조선반도에있는 미국의 책동으로 국토량탄과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되고있고,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과 제재로 조선

의 평화적발전은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다. 이것은 그냥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어 하라불러 자유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이 실현될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등을 돌리려고 음흉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약탈하게 강행하고있다. 그 가장 집적적인 표현이 해마다 벌어지고있는 미국남측합동군사연습이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바라는데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인 미르망의 길로 줄달을 치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인민중추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따라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폐하고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는 미국은 조선의 핵억력에 대한 독바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선 핵보국》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라고 함부러 떠벌이며 어리석게 늘어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감자들을 가지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언어오답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하다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해도 인민의 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은 변함없이 꽃피어 전진할것이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가증시켜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중국적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인 조선인민은 미제의 전세에는 압살책동에서도 사소한 용모나 주저도 없애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4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위를 계속 부추려보려고 발악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저들의 포위를 위해 지난 시기처럼 조선의 《핵위협》과 《미싸일위협》, 그 무슨 《도발》을 구실로 내걸고있다. 미국방성은 《4개년국방년도》보고서라는데서 2020년까지 해군부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방장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배비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꾸러 핵억제력강화와 군사적대우호를 유도함으로써 조선에 《호전》감투를 씌우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부분별한 책동은 6차 회담의 제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서의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것이다. 미국은 아직 시간이 없는데 때때로 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하여 잘 따져보고 그것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 글 발표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인 미르망의 길로 줄달을 치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인민중추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따라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폐하고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는 미국은 조선의 핵억력에 대한 독바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선 핵보국》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라고 함부러 떠벌이며 어리석게 늘어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감자들을 가지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언어오답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하다

반대로 남조선에는 수많은 실업자가 있으며 각종 세금이 범람하고있다. 집이 없는 사람들과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도없이 많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수 없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오박책들을 단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브라질자유주조당 부위원장 로자나 다 캄보스가 4월 23일 신문 《오라 두 브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허위선전에 어용인물들을 동원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최근 일부 보수언론기관들이 미국의 허위선전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떠벌어대고있고 대외비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에서의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것이다. 미국은 아직 시간이 없는데 때때로 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하여 잘 따져보고 그것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 글 발표

소문을 퍼뜨리고있는데 대하여 개박했다. 조선의 북과 남의 현실은 판이하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오백년에 세습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실업자층이 찾아볼수 없다. 사람들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증강을 기도하고있는것은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여 지역의 여러 대국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데도 중요한 속심이다. 오바미행정부는 몇년전에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았다. 아시아태평양《해군평화》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한 이 전략은 말 그대로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힘의 균형을 재조정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감히 미국에 대항해나서지 못하도록 한다는것이다. 미국은 주요대국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그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에만한 서해열점순역을 막근해군사불한항들의 첫 무덤으로 만들었다》를 2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가 보도를 발표하여 22일 연평도근해에서 있었던 무적은 남조선군이 선불정 한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는 남조선이 22일 오후에 조선이 연평도근해에 있는

남조선측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저들이 대응사격을 가한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벌어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남정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의 보도 조선군대가 《핵력도발을 감행》하여 정전협정과 북남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것처럼 경고하면서 그 무적은 남조선군이 선불정 한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는 남조선이 22일 오후에 조선이 연평도근해에 있는

불질을 해대고는 그것을 조선이 포사격을 가한것이 꾸며낸 기만극이었다고 보도는 주장하였다. 보도는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전제 장병들이 남조선의 도발적인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만단의 결연태세를 갖추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통신, 신문 《로씨야가 가제매》, 인도태도통신 소르발트, 일본의 오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세계최초의 전기비행기 제작

최근 유럽의 한 비행기제작업체가 순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최초의 전기비행기를 제작하여 시험비행을 진행하였다. 길이가 6m이상인 이 비행기에는 120개의 리튬이온전지가 설치되어있으며 시속이 최고

200km이고 한편 충전하면 1시간정도 비행할수 있다고 한다. 전기비행기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비행기를 리용한 리행비용이 종전 대비 30% 줄어들수 있으며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실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현재 세계의 30여 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426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고있다. 현재 건설중이 있거나 계획중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총 181개에 달한다. 최근에만도 3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중국과 이란 등 나라들에서 새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쏘베트 조국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시기 영웅적순국군대와 인민은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 다. 영용한 쏘련군대와 인민의 투쟁앞에서 히틀러침략군은 대참패를 당 하였 으 며 1945년 5월 9일 드디어 항복하였다. 조국전쟁에서의 쏘련인민의 승리는 쏘련공산당의 령도,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 그리고 쏘베트 조국에 대한 쏘련인민의 무한한 사랑과 환신성, 원수를 반대하는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대적영웅주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전승절을 맞으며 각자의 각 지에서는 로병들과 군대와 인민

들이 깊은 추억속에 위대한 조국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로씨야연방 부원은 전승절 전야에 위대한 조국전쟁마당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여 무명전사묘의 《영원한 불길》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는 전승절경축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5월 9일은 이 세대로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명절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쏘베트인민이 큰 역할에 대한 신성하고 영원불멸한 진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대통령은 정평 《라프리아공화국, 리프바공화국, 예스투리아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일부 부부의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의 불길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에서 축하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로병들에게 생활자금을 보장하기로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침략과 전쟁의 온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과 사슴분자들이 제세상처럼 활개 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손 융합하게 싸운 영웅들의 위훈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얼마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쏘련인민해방자들의 기념비가 모욕당하는 사건이

미국의 정탐 활동에 대한 조사 움직임 강화

도이힐란드에서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가안정보장국의 정탐활동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일본극우 파거죄행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과거죄행을 부장하는 망발을 또다시 늘어놓아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다.

일 본 극 우 파 거 죄 행

가 필요하였다고 떠벌어 1년 전의 망언을 되풀이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13일 오사카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쏘베트 조국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시기 영웅적순국군대와 인민은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 다. 영용한 쏘련군대와 인민의 투쟁앞에서 히틀러침략군은 대참패를 당 하였 으 며 1945년 5월 9일 드디어 항복하였다. 조국전쟁에서의 쏘련인민의 승리는 쏘련공산당의 령도,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 그리고 쏘베트 조국에 대한 쏘련인민의 무한한 사랑과 환신성, 원수를 반대하는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대적영웅주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전승절을 맞으며 각자의 각 지에서는 로병들과 군대와 인민

들이 깊은 추억속에 위대한 조국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로씨야연방 부원은 전승절 전야에 위대한 조국전쟁마당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여 무명전사묘의 《영원한 불길》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는 전승절경축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5월 9일은 이 세대로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명절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쏘베트인민이 큰 역할에 대한 신성하고 영원불멸한 진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대통령은 정평 《라프리아공화국, 리프바공화국, 예스투리아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일부 부부의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의 불길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에서 축하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로병들에게 생활자금을 보장하기로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침략과 전쟁의 온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과 사슴분자들이 제세상처럼 활개 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손 융합하게 싸운 영웅들의 위훈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얼마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쏘련인민해방자들의 기념비가 모욕당하는 사건이

《인권》소동은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주곡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에 대해 열을 올리기 좋아한다. 해마다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부장하는 파우머 이라레라레라 혼시절해대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에 대해 열을 올리기 좋아한다. 해마다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부장하는 파우머 이라레라레라 혼시절해대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에 대해 열을 올리기 좋아한다. 해마다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부장하는 파우머 이라레라레라 혼시절해대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